

416

세월호



그 후...



이 책은 어린이책을 만드는
몇몇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2014년 4월 15일 오후 8시 30분

안개가 걷혔다. 수학여행이 취소될까 봐 조마조마했던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 325명은 가족들에게 '잘 다녀오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2014년 4월 15일 오후 8시 45분

승객과 승무원 475명이 세월호에 올랐다. 굴삭기, 트럭, 컨테이너도 잔뜩 실렸다. 마지막 화물이 오를 때는 배에 실을 수 있는 무게를 두 배나 넘긴 뒤였다.



2014년 4월 15일 오후 9시

세월호가 인천에서 제주로 출발했다. 이벤트 업체는 준비한 쇼를 열었다. 승객들은 볼꽃놀이, 림보게임을 구경했다. 비상시 안전교육은 받지 못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9분
아침이 밝았다. 승객들이 밥 먹고 쉬고 있을 때
갑자기 배가 크게 기울었다.
승객들도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2분
단원고 2학년 6반 최덕하 군이 119에 최초 신고를 했다. 3분 뒤, 세월호도 조난
신고를 했다. 가까운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가 아닌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에 했다.

현재 위치에서 절대
이동하지 마세요!

아야, 이거
SNS에 올려.

지금 이 사랑은
배가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진짜
물 들어오면
웃기겠다!

움직이면 더 위험하니
움직이지 마세요!

중력을 무시한
사나이!

절대
움직이지
말라니!

이런걸
찍어야 돼!

절대로 이동하지
마시고 객실에서
대기하세요!

여기 구명조끼
하나가 없어!

내건 얘기용이야!
얘기용!

진짜 침몰해?

안 돼~ 아직 못본
여자가 많다고!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9분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나왔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32분

해경 구조정이 현장에 도착했다. 선장과 선원은 구조정에 옮겨 뒀다.
세월호를 버리고 탈출했다.

"야, 내 구명조끼 입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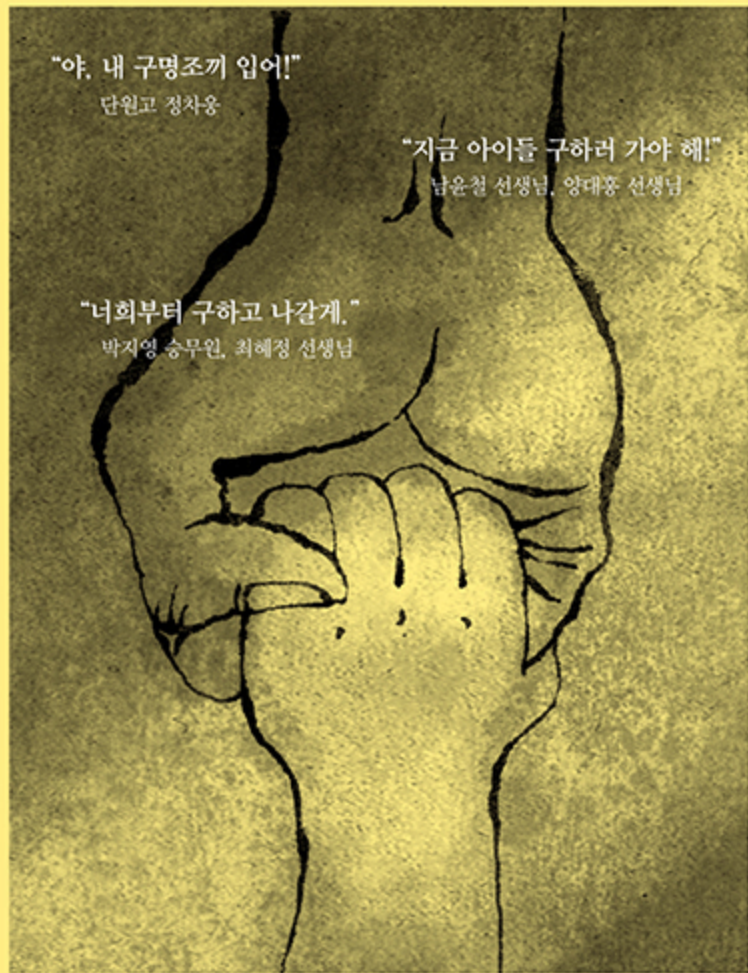
단원고 정차웅

"지금 아이들 구하러 가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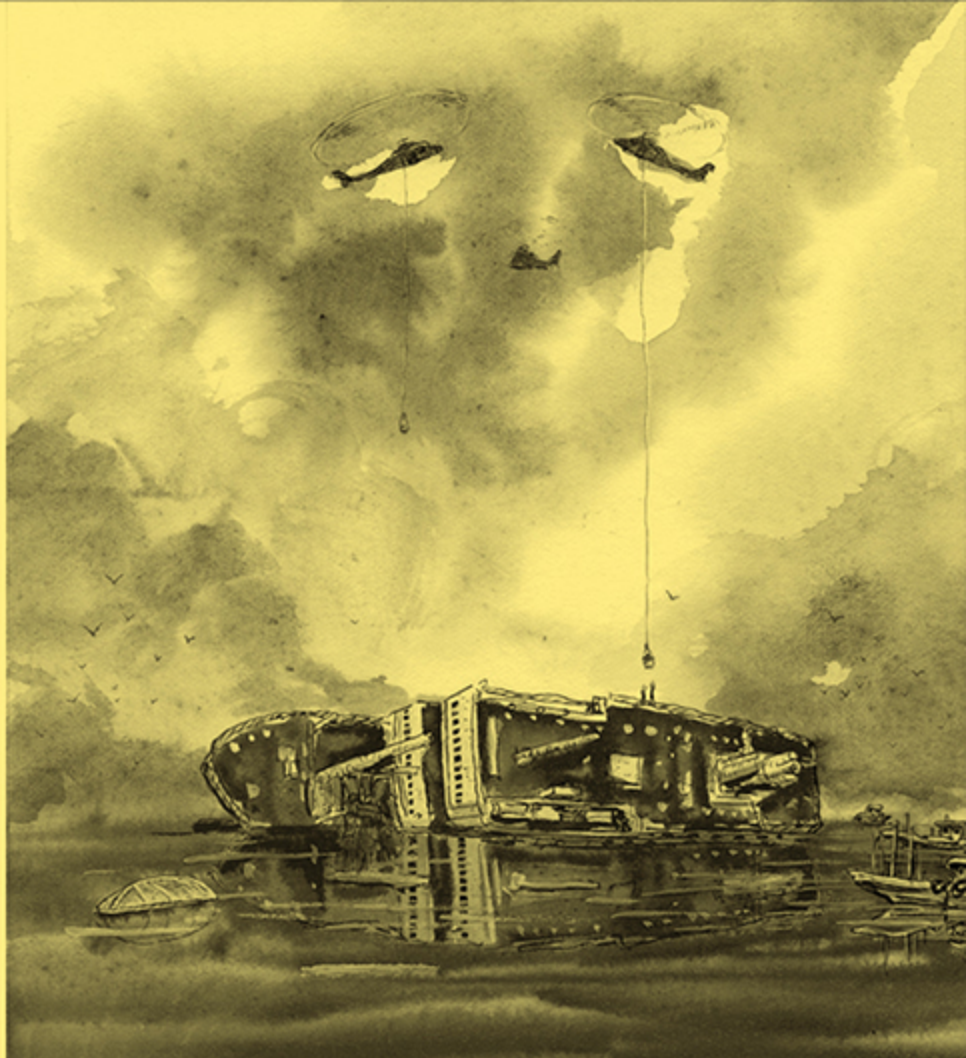
남윤철 선생님, 양대홍 선생님

"너희부터 구하고 나갈게."

박지영 승무원, 최혜정 선생님



승객들은 서로 도우며 구조를 기다렸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50분

해경은 마이크를 갖고 있었지만, 배 안에다 탈출하라는 방송을 하지 않았다.
배 밖으로 나온 승객들만 구조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방송에서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속보가 났다. 많은 국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단원고 학부모들은 갈아입힐 옷과 음식을 챙겨 진도로 출발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18분

세월호가 머리만 남긴 채 침몰했다.



팽목항에 취재진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방송국, 신문사는 물론 외신 기자들까지 카메라를 들이댔다.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세월호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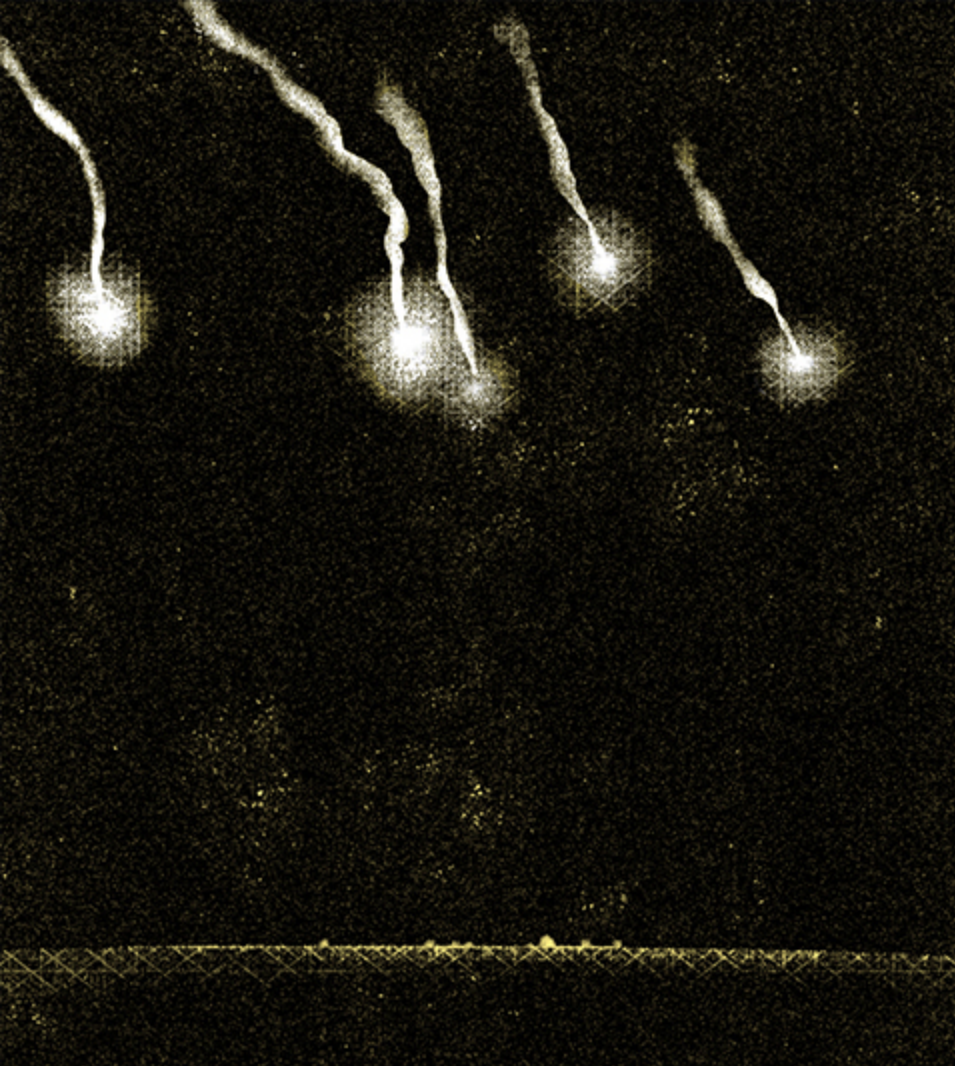


진도체육관에 가족들이 도착했다. 전원 구조 소식은 오보였다.
상황실은 애끓는 통곡 소리로 가득 찼다.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 15분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세종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다.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왜 발견이 안 되지요?"



2014년 4월 16일 밤 11시 59분

정부는 잠수부 178명이 수색중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수색은 단 두 번, 24명만이 참여했다. 사망자 5명, 실종자 29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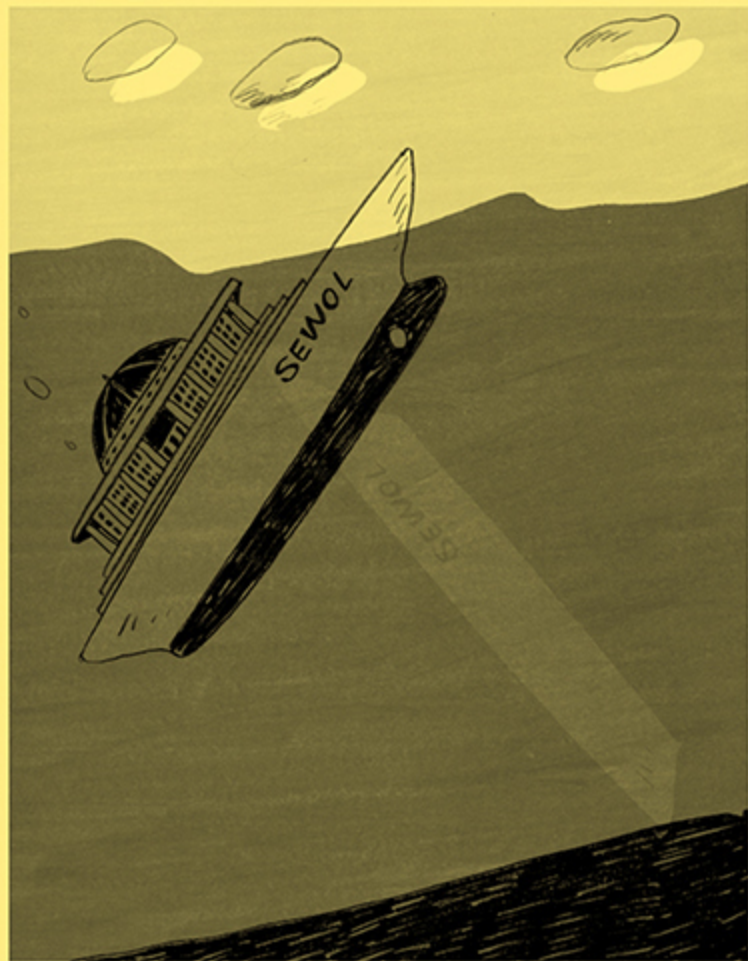
2014년 4월 17일

가족들이 바지선을 타고 사고 현장에 갔다. 해경이 민간 잠수부들을 통제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많은 배와 잠수부들이 구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2014년 4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했다. 가족들은 '왜 구조하지 않느냐,' '왜 잠수부들을 못 들어가게 하느냐,' 항의했다. 경호관이 가족들을 에워싸고 막았다.



해경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경찰서에서 조사하지 않고 아파트에서 보호했다. 그날 아파트 CCTV는 사라졌다.



당신들을 기억하겠습니다!!

1 외면, 소통불능	2 왜곡, 날조, 누락	3 왜곡, 날조, 누락
박근혜 대통령	YTN	KBS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을 외면, 언론과 방송의 왜곡 보도를 방관	4월 18일 오전 11시 20분쯤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해경이 선체에 진입했다고 왜곡 보도	4월 18일 오후 4시 30분 선내 영격있는 시신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왜곡 보도
4 왜곡, 막장 쇼	5 직무유기	6 무감각
MBC	해경	정홍원 국무총리
단위급 학생 전원 관리도 오보, 확인하지 않고 방송	사고 당일 운항일지 일부를 찢고 다른 내용을 적음	아이들이 차가운 바닷속에 있는데 진도에 고급 한옥 펜션에서 숙박함

7 참사 주먹방	8 누워서 침 뱉기	9 직무유기
서삼수 교육부 장관	정몽준 의원 아들 정 아무개	유관석 세종시장 후보
구조된 승객들을 응급치료하던 자리에서 대부분을 밀치러 라면 먹음	페이스북에 세월호 사태 관련 "국민 정서 자체가 광장히미개" 라고 남김	세종시장 청년당원, 세종시 교목감 출마자와 폭탄주 음자리
10 가로채기	11 막말	12 사기
기자들, 정부 관료	엄마 복대 봉사단	스미싱 사기단
정부와 경찰, 언론이 진도국악원 등차지. 유가족은 평안함이라며 '평안' 건도 계속관으로 보냄	"세월호 때문에 국민들 생명이 죽었고, 국가 경제도 죽었다!!" 광화문에서 소리침	세월호 사고로 등타 악성 코드 유포, 소액결제 사기를 침
13 날조	14 비방, 욕설	15 얕은 이기심
A 씨	B 군	나
군 장수부들이 밤과 새벽복을 이용해 시체를 뱃속에서 몰래 꺼내 바닷속으로 던져 버렸다고 허위사설의 근본 제거	세월호 사고로 인해 수학여행은 못간다고, 희생자 유가족을 원망하는 욕설 제거	"문숙은 청방" 책이 세월호 여파로 안 팔릴 것 같다고 하소연함. 값이 반성합니다.



2014년 4월 19일

참사 4일째가 돼서야,
잠수부가 배 안에 들어갔다.
살아 있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또다시 해가 뜨기를 기다릴 수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물속에서 우리를 애타게 부르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2014년 4월 20일

새벽 1시, 실종자 가족들은 '도대체 왜 빨리 구조하지 않는가!' 항의했다.
대통령을 만나 물겠다며, 진도에서 청와대 쪽으로 행진했다.
경찰은 가족들을 감시하며 가로막았다.

들리시나요

들어주세요

만나주세요



2014년 4월 22일

생존자 가족들도 분통을 터뜨렸다.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거짓 발표만 해대는 정부와 언론을 비판했다. 사망자는 121명으로 늘어났고, 얼굴만으로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워졌다. 시신이 훼손되기 시작했다.



2014년 4월 26일

세월호 선원 15명이 구속되었지만, 사망자는 187명으로 늘어만 갔다. 살아서 구조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2014년 5월 7일

사망자가 269명으로 늘어났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월호 사고 원인과 구조가 늦어진 이유를 밝히자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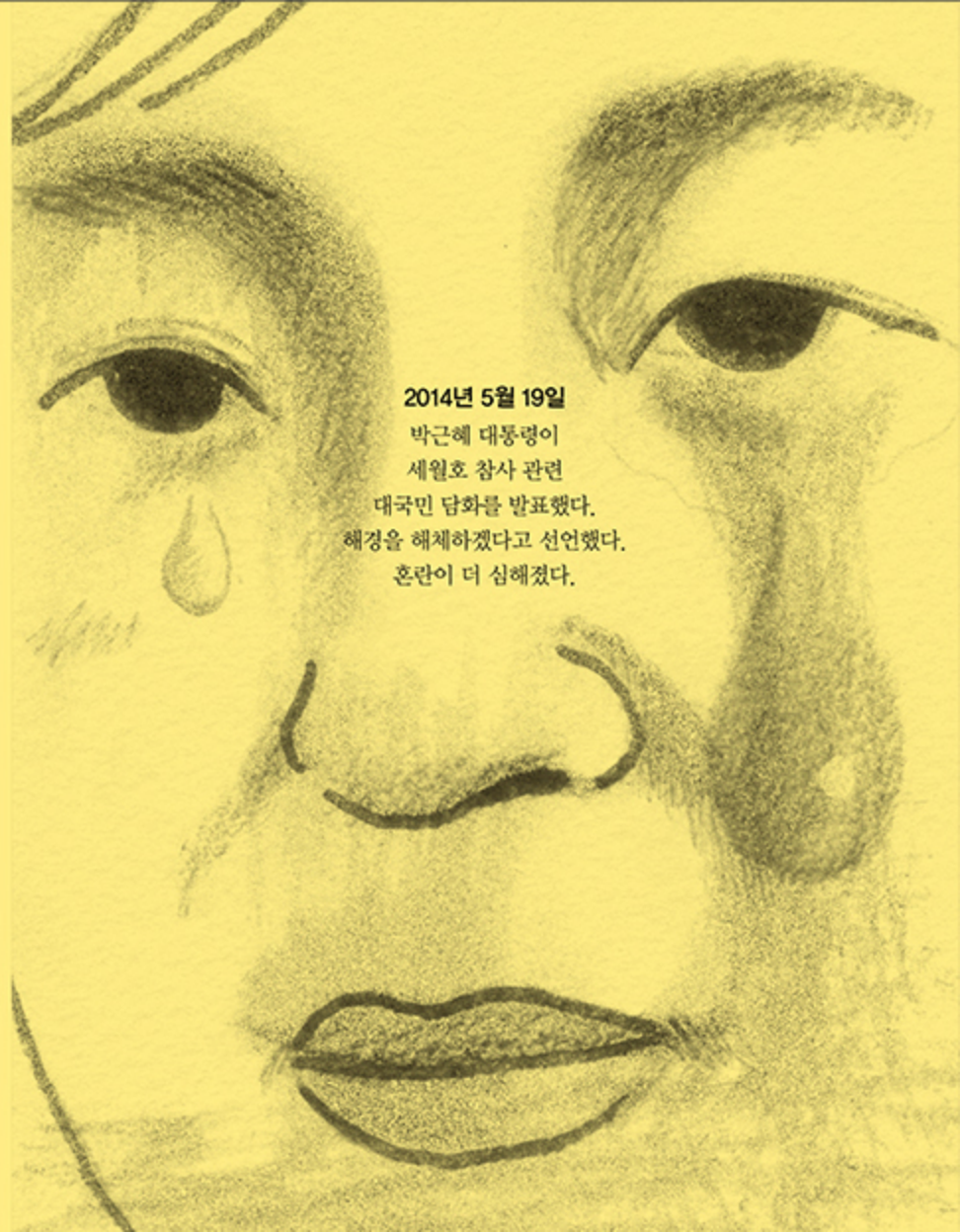
2014년 5월 8일

언론이 유가족을 모욕했다. 특히 공영방송인 KBS 보도국장은 세월호 희생자가 연간 교통사고로 치면 그리 많은 수는 아니라는 내용으로 막말을 했다. 유가족이 항의했지만 묵살 됐고,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더니 경찰이 막아섰다. 유가족은 청운동 길바닥에서 한뼨잠을 자며 농성을 시작했다.



2014년 5월 16일

참사 한 달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 17명을 청와대로 불렀다. 유가족 뜻대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상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선거를 20일 앞둔 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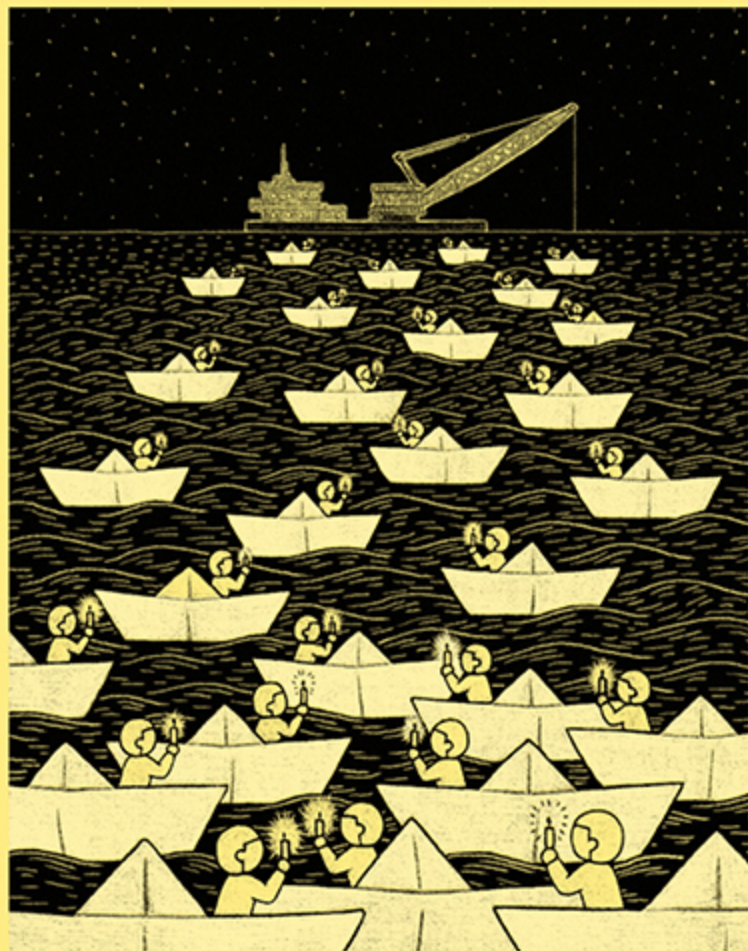


2014년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해경을 해제하겠다고 선언했다.
혼란이 더 심해졌다.



2014년 5월 22일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철저히 밝히자. 책임자를 벌하고, 생명과 안전이 보장된 사회를 만들자." 유가족과 국민들은 세월호참사국민대책위를 만들었다.



2014년 5월 23일

대책위는 정부와 경찰을 믿고 의지하기 어려웠다. 유가족이 진도에 머무르며 수색작업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증거품이 가족에게 전달되는지 확인했다.



2014년 6월 2일

참사 48일째,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시작됐다.



2014년 6월 8일

제자들을 구하러 들어갔던 단원고 유니나 선생님이 발견됐다.

시신은 많이 훼손되었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는 대책위에게 실종자 전원 수습과 국정조사 가족 참여 보장을 약속했다.



2014년 6월 12일

국정조사는 파행을 거듭했다. 대책위는 정부를 믿을 수 없게 됐다. 법외으로, 국회로 찾아다녔다. 증거품과 기록, 영상자료를 보존해달라고 신청했다.



2014년 6월 25일

단원고 생존 학생 73명이 등교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씩씩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를 잊지 말아주세요."



2014년 7월 1일

국정조사에서 유가족은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조롱과 삿대질을 당했다.

2014년 7월 2일

대책위는, 진실을 밝히자면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2014년 7월 14일

서명지가 쌓여가도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특별법을 만들지 않았다.
유민 아빠 김영오 씨 등 세월호 유가족 15명이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2014년 7월 14일

유가족을 혈투는 글이 모바일 메신저와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이 사실처럼 퍼졌다.



2014년 7월 15일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단원고 생존학생 46명이 단원고에서 국회의사당까지 40km, 22시간을 걸었다.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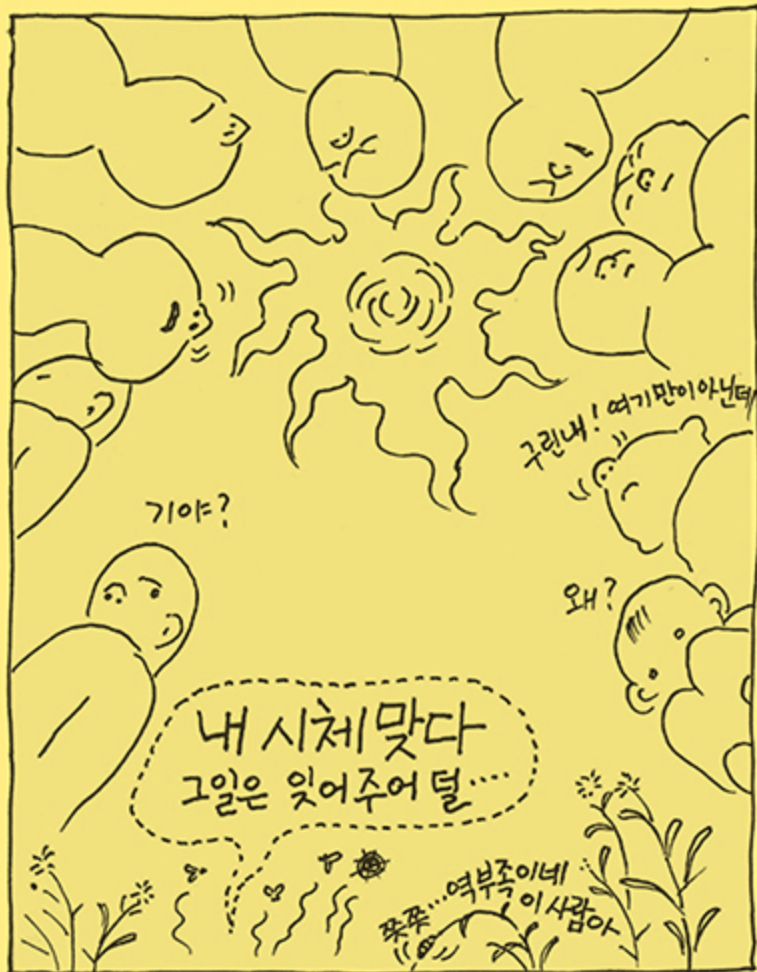
2014년 7월 17일

어버이연합이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난동을 부렸다.



2014년 7월 18일

계절이 바뀌어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밝혀진 것이 없었다.
특별법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사망자는 294명으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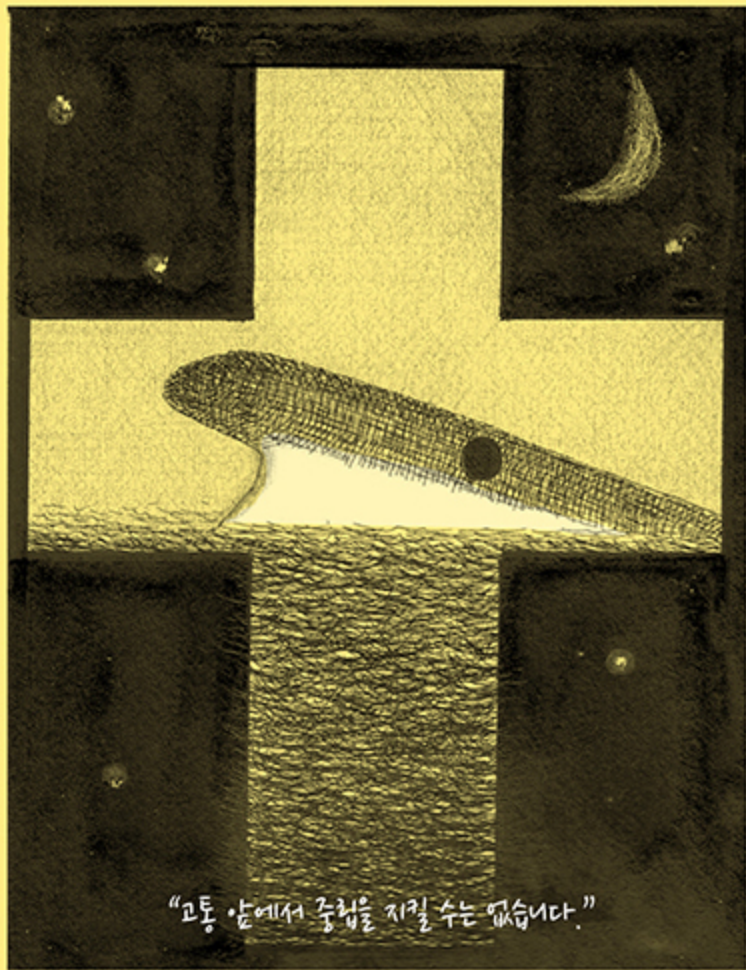
2014년 7월 21일

세월호 속사정을 알 거라 믿었던 유명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죽은 채 발견됐다고 보도됐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많은 국민과 유가족은 의구심을 버릴 수 없었다.



2014년 7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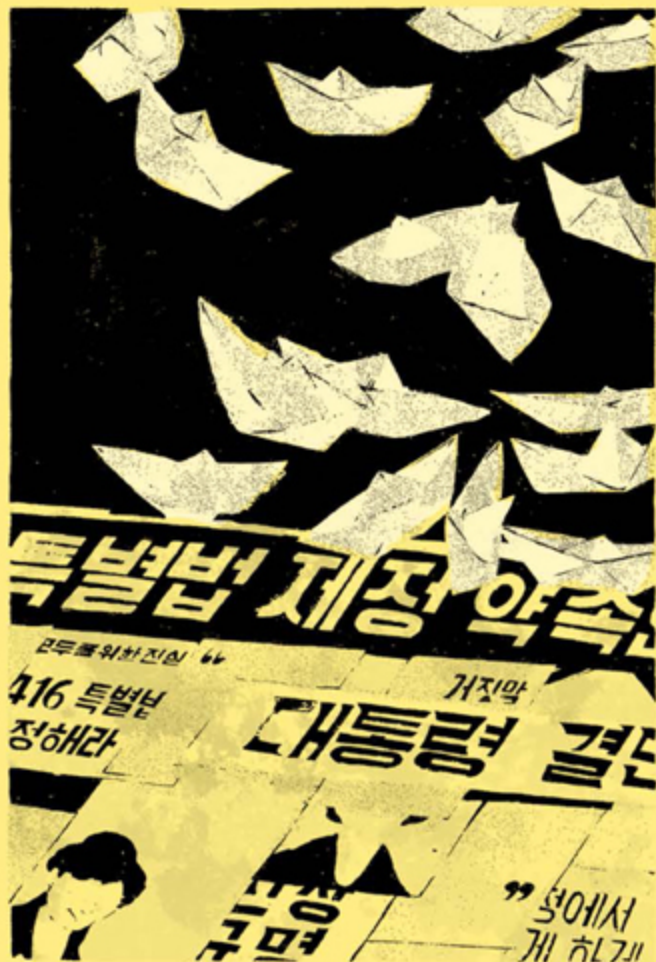
세월호에서 건져 올린 업무용 노트북을 복원했다.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이 100개 발견됐다. 세월호와 국정원은 어떤 관계인가?



2014년 8월 16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광화문광장에서 미사를 드리며 세월호 유가족을 만났다. 정부가 위로하지 못한 유가족을 외국인 교황이 위로해 주었다.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2014년 8월 22일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라!" 유가족은 청와대 옆 청운동 길바닥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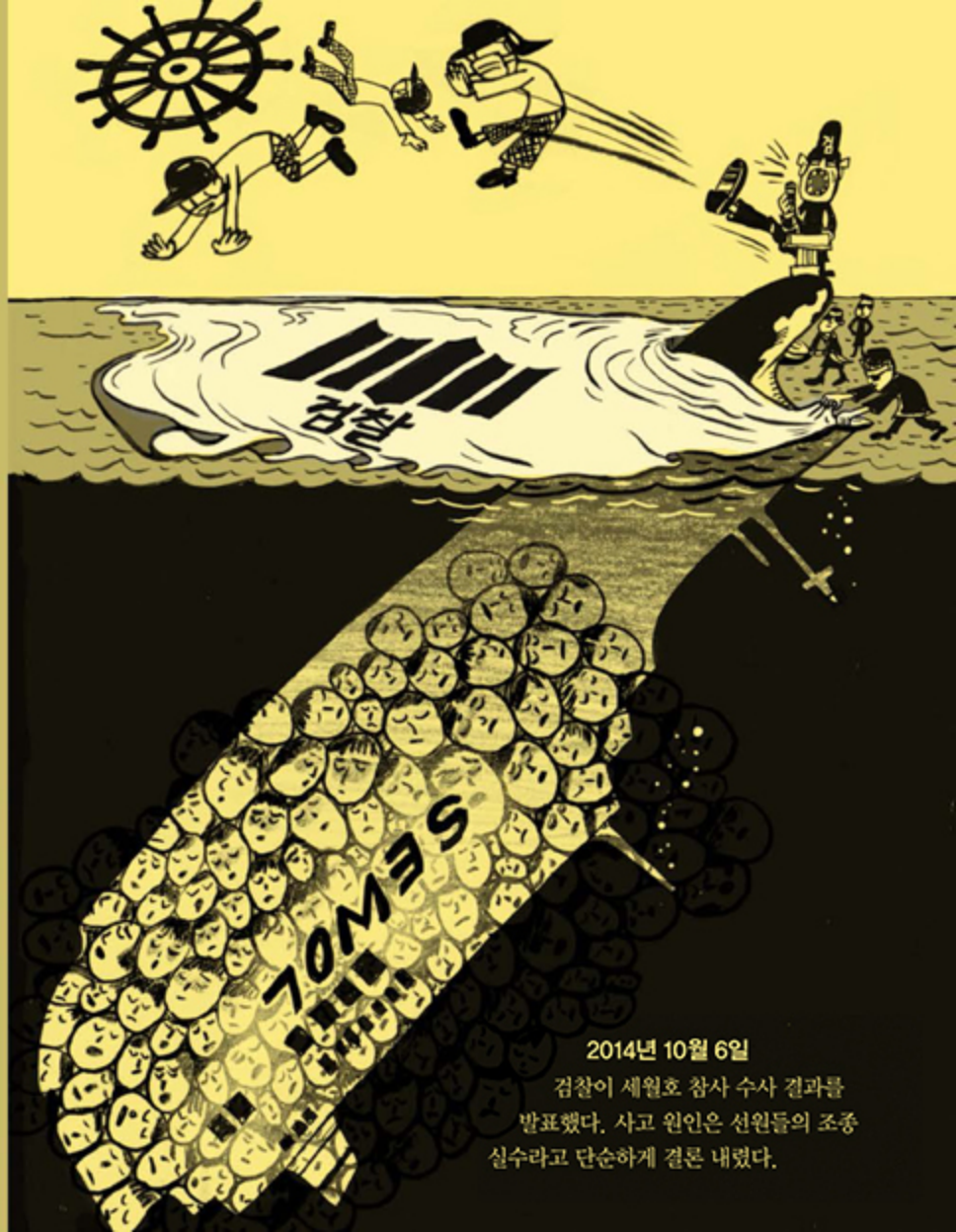


아빠 힘내요.

2014년 8월 28일

"살아서 함께 진실을 밝혀내자." 가족과 국민들 호소에 따라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단식을 중단했다. 46일만에 미음을 먹었다. "기나긴 싸움을 준비하겠다!"

2014년 8월 30일
90일 동안 열렸던 세월호 국정조사가 끝났다.
청문회도, 진실 규명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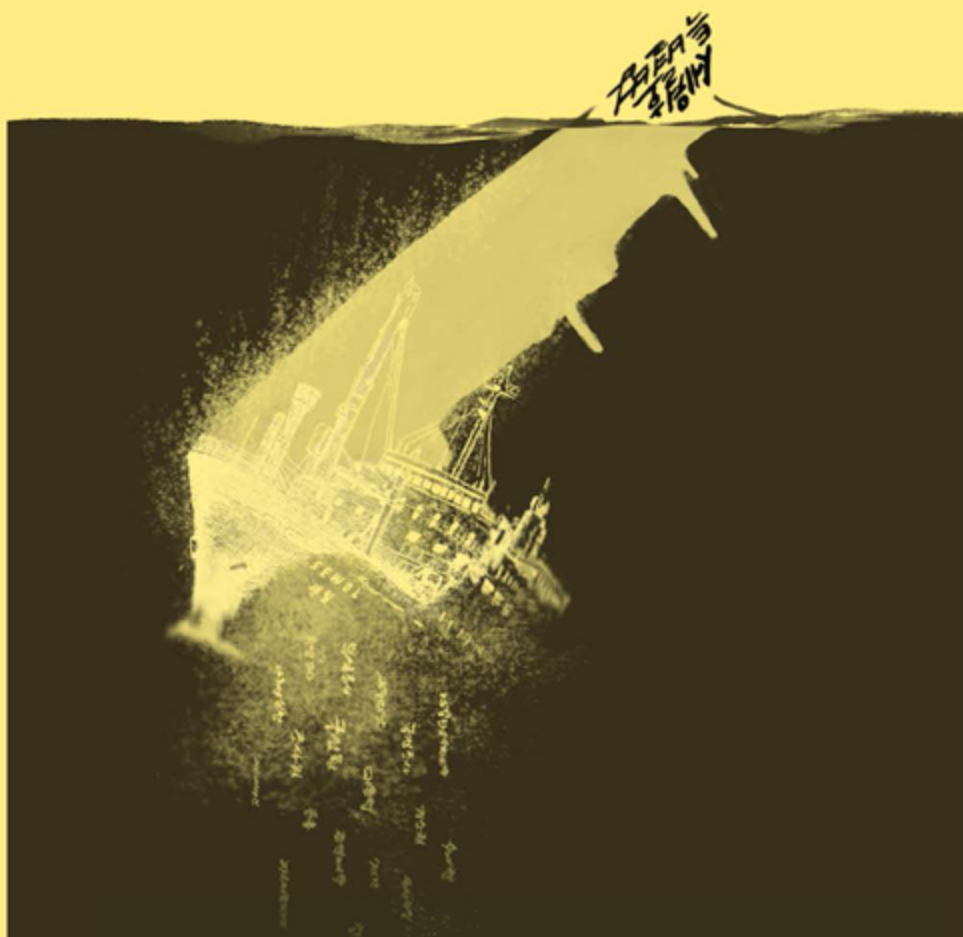


2014년 10월 6일
검찰이 세월호 참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 원인은 선원들의 조종
실수라고 단순하게 결론 내렸다.



2014년 10월 29일

참사 197일 만에, 마지막 인양 102일 만에 황지현 양이 발견됐다.
295번째 사망자였고, 이날이 생일이었다.



2014년 11월 7일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은 특별법이었다.
정부는 유가족과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014년 11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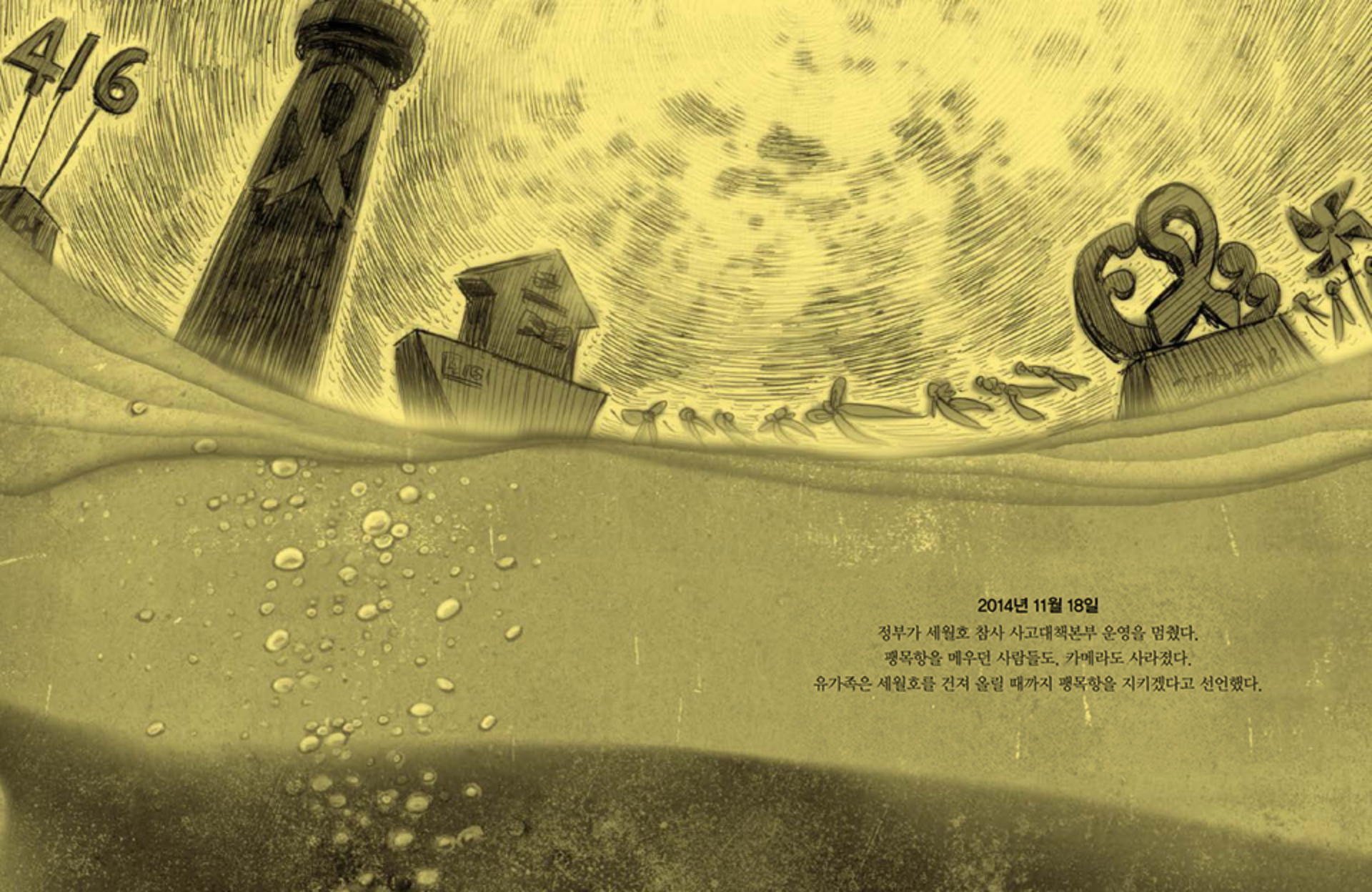
정부가 세월호 수색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직 바다에 사람이 있었다.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는 9명이었다.



선장 징역 36년, 기관장 징역 30년, 선원 13명 징역 5~20년.

광주지법 재판부에서 판결이 났지만, 세월호 참사 이유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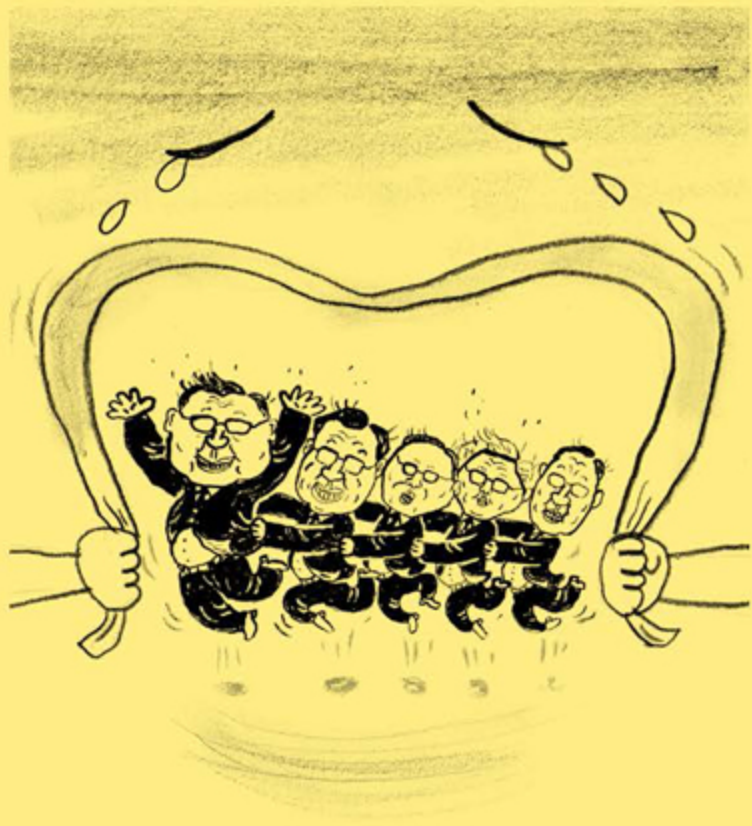


2014년 11월 18일

정부가 세월호 참사 사고대책본부 운영을 멈췄다.

팽목항을 메우던 사람들도, 카메라도 사라졌다.

유가족은 세월호를 건져 올릴 때까지 팽목항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2014년 12월 15일

특별법이 통과돼서, 정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했던 사람들, 공안검사,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것을 비판했다.

2015년 새해가 밝았다.

세월호와 진실은
여전히 깊은 바닷속에 잠긴 채.





맛있는걸 먹고 싶어요



안녕하고 싶어요



이야기 하고 싶어요



내 아이의 작은 부분이라도 만나

각별 인사를 하게 해주세요

2015년 1월 16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부정적 위원들이 포함된 채 시작했다.
참사 이유를 조사하려는 용의심이 있었지만, 세월호 인양 논의는 지연되었다.
실종자 유가족은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

2015년 1월 22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를
하기도 전에 다름과 협박만 되풀이했다.
어떤 위원들은 만들어진 특별법조차
따르지 않으려 반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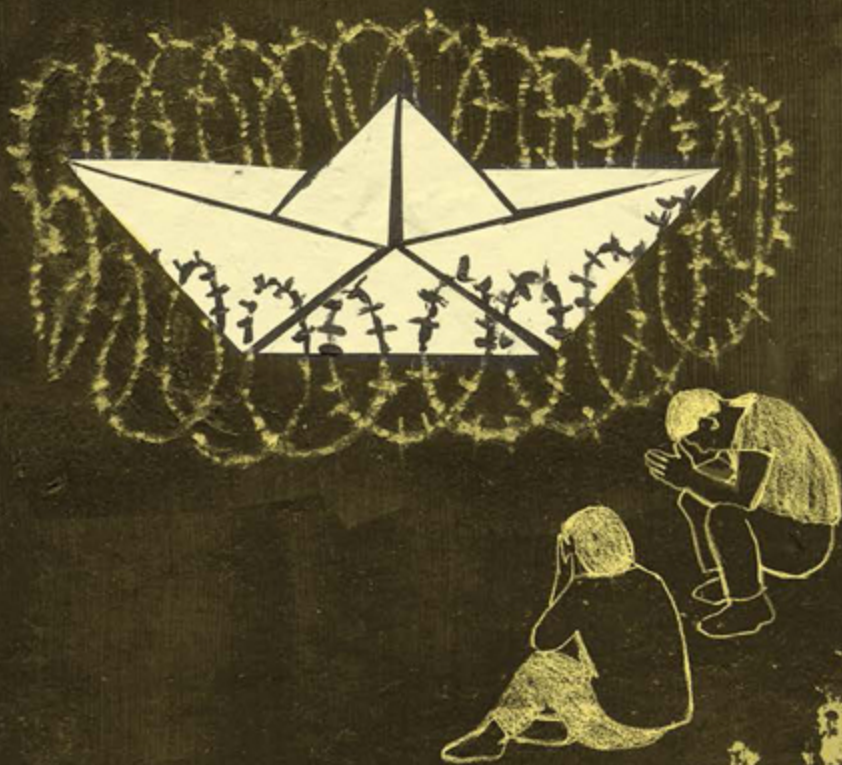


2015년 1월 26일부터 2월 14일

유가족은 서울에서 진도까지 20일을 걸었다. 한뼘잠을 자며 세월호 인양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였다. 2월 14일, 시민 3천여 명이 유가족과 같이 평택항에 모였다. 세월호를 건져 올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시민대회를 열었다.

2015년 3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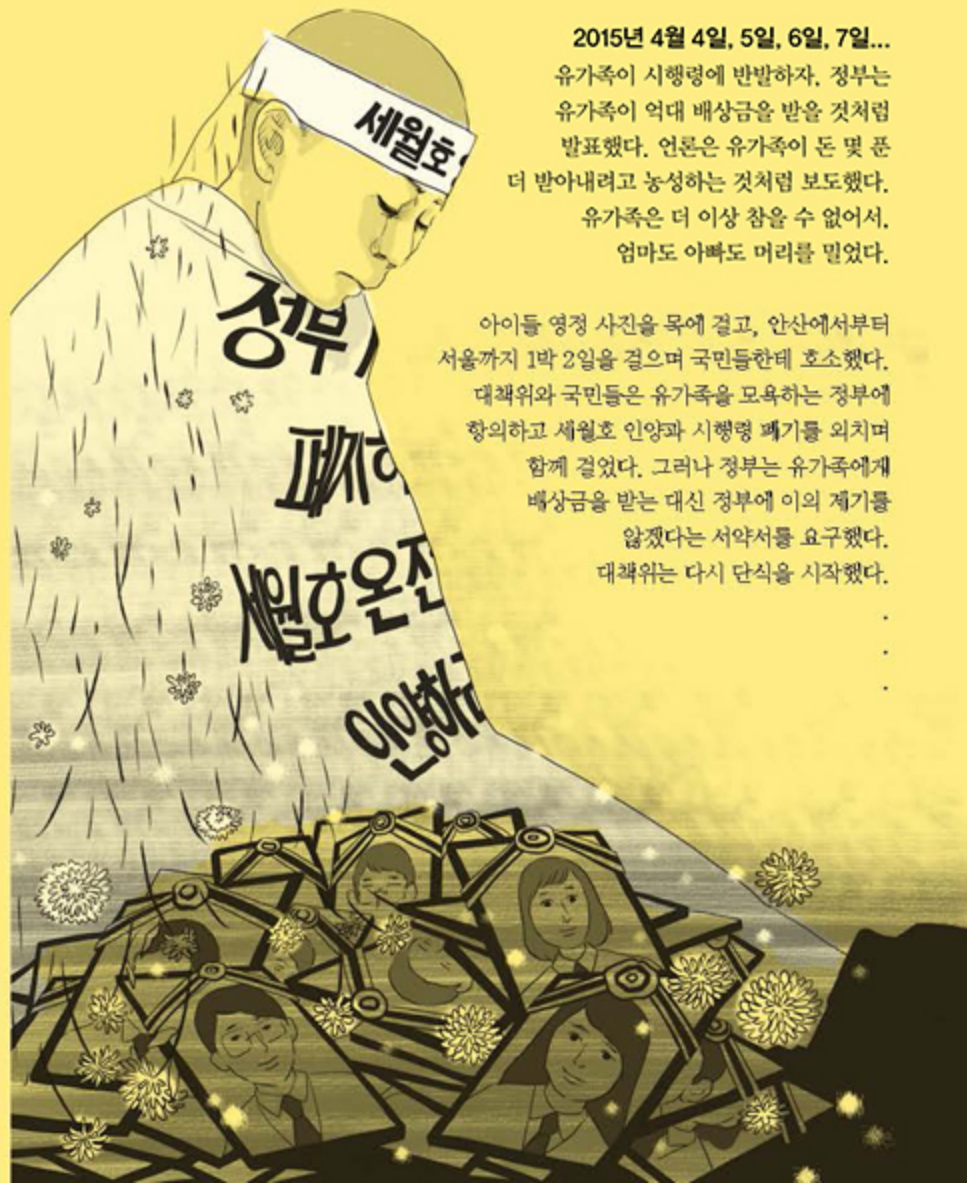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 통제를 받아야 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는 불가능했다.





2015년 3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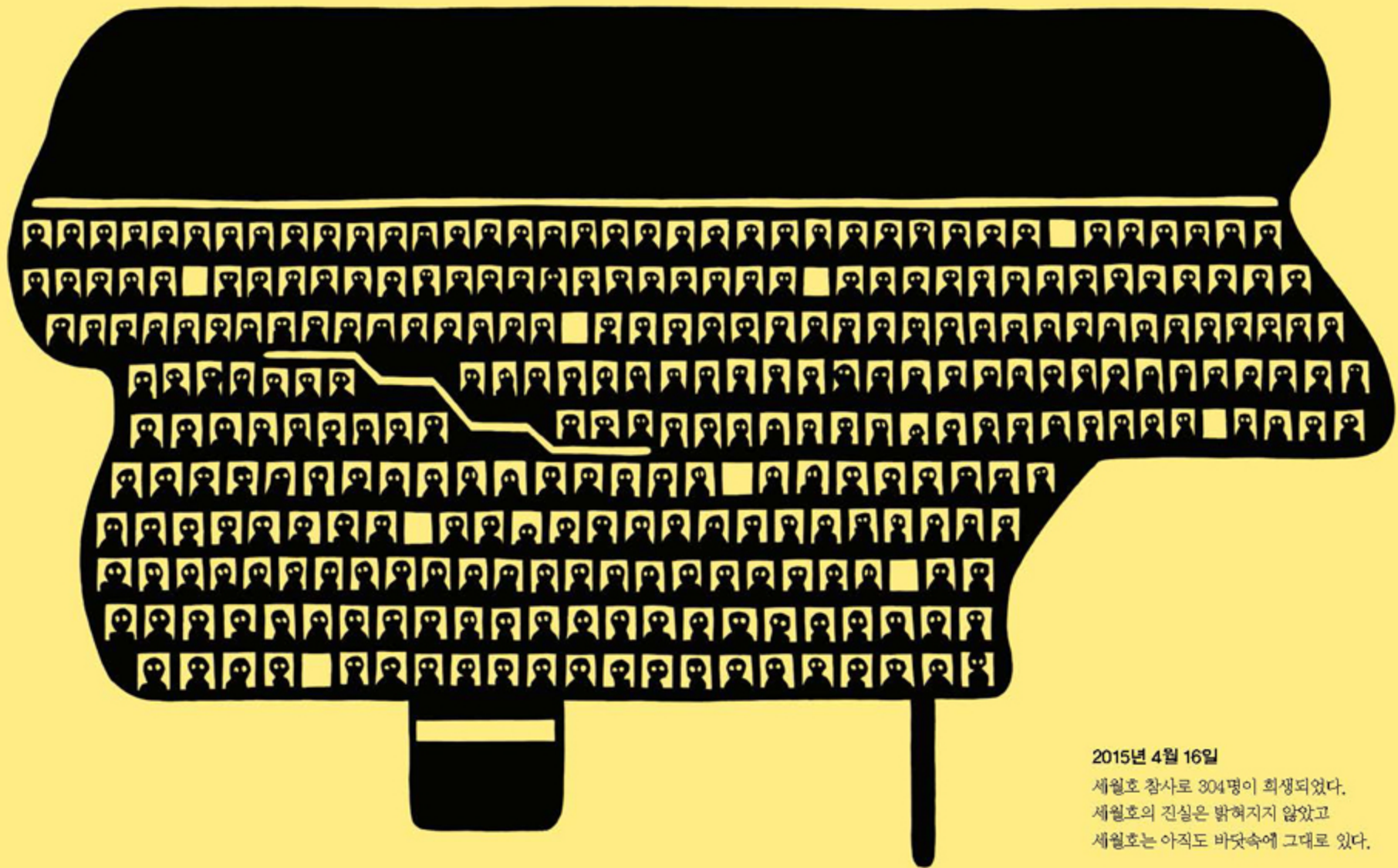
유가족이 다시 광화문 거리로 나왔다. 시행령을 내놓은 정부에 분노했다. "시행령을 폐기하라!" 유가족은 경찰에 막히고 넘어졌다. 다치고 쓰러졌다. 그러나 다시 일어났다.



2015년 4월 4일, 5일, 6일, 7일...

유가족이 시행령에 반발하자, 정부는 유가족이 역대 배상금을 받을 것처럼 발표했다. 언론은 유가족이 돈 몇 푼 더 받아내려고 농성하는 것처럼 보도했다. 유가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엄마도 아빠도 머리를 밀었다.

아이들 영정 사진을 목에 걸고, 안산에서부터 서울까지 1박 2일을 걸으며 국민들한테 호소했다. 대책위와 국민들은 유가족을 모욕하는 정부에 항의하고 세월호 인양과 시행령 폐기를 외치며 함께 걸었다. 그러나 정부는 유가족에게 배상금을 받는 대신 정부에 이의 제기를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다시 단식을 시작했다.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희생되었다.
세월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세월호는 아직도 바닷속에 그대로 있다.



우리는 목격했다.



검은 바다에 진실이 가라앉는 것.

돈의 사슬에 양심이 묶이는 것.

시간의 파도에 기억이 쓸려가는 것.



416이 묻는다.

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